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삼상 24:1-7

1Samuel 24:1-7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1.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2.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3.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5.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6.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7.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설교

“찢려야 행복해져요”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1.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
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
을 듣고,**



삼상 24:1-7
1Samuel 24:1-7
개역한글 성경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흑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라

삼상 23:19

- 십 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상26:1

- 십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삼상24:20

-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걸러 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1.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
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
을 듣고,**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2.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
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3.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3.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삼상 24:1-7
1Samuel 24:1-7
새번역 성경

5.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겹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삼상24:19-20

-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